

# 세계환경의 날과 지구환경문제

김 용 진

환경부 환경교육과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대대적인 거시공해현상 (Macro-Pollution Phenomena)으로 표출되고 있다.

즉, 오존층 파괴에 따른 생태계 파괴 및 인체피해, 이산화탄소(CO<sub>2</sub>)의 배출량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 야생동식물의 남획과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생태계의 균형상실, 고도산업화에 따른 유해폐기물의 발생량 급증 및 이의 불법수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지구환경 문제는 오늘날 그 규모의 거대화 및 지구화로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그 해결이 지난한 과제로 대두 되고 있다.

따라서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여 전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서 국가간 다자간 공동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89년 소비에트연방의 붕괴로 시작된 공산주의 몰락의 도미노현상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에 의한 양국체제가 국가별 이익을 중시하는 다원체제로 재편되면서부터는 '지구환경문제'가 새로운 국제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대 사회문제 중에서 공해, 폭력, 가난, 굶주림을 묵시록의 4기사로 표현한 미국의 여류사회학자인 펜체프(Esther Penchef)는 그의 책 '묵시록의 四騎士' 서문에서 "이제 세계는 역사상 미증유의 단일 차원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해야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4기사의 위협을 돌파하고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류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이의 해결에 쏟아 붓되, 그 첫단계로서 우리는 남들도 우리 자신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그들과 상관적으로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는 말로 이러한 시대를 특징짓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지구촌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최초로 시작된 때는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지구는 단 하나뿐이다(Only one earth)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된 이 회의에는 113개국의 국가대표 외에도 국제기구, 민간단체, 언론인 등 6,0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오늘날 지구환경 논의의 기본헌장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는 '인간환경선언'(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을 채택하고, UN내에 환경전문기구를 설치하고 세계환경의 날을 제정할 것을 제창하였다.

벌써 24주년이 되는 "세계환경의 날"은 바로 유엔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된 날을 기념하고, 인류공동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UN이 지정한 날인 것이다.

당시 창설된 UNEP(UN Environment programme)

# 환 · 경 · 논 · 평

는 해마다 이날을 기해 한 주제를 정하여 각국이 다양한 환경행사를 전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금년 주제는 '우리 지구, 우리 터전, 우리 가정(Our Earth, Our Habitat, Our Home)'으로 정하였다.

당시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인간환경선언문은 그 유명한 "인간은 환경의 창조물임과 동시에 환경의 형성자이다"라고 시작되는 서문과 26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당시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거의 망라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환경계획(UNEP)은 국제환경문제기 유엔체제 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치적 차원에서 검토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무튼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는 오늘날의 국제적 환경문제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동 회의가 개최된 날은 인류 공동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있어 의미심장한 날로서 기념되고 있다.

유엔은 '스톡홀름 선언' 10주년이 되는 1982년에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며 문명도 자연에 기초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문명의 경제·사회·정치적 구조의 존망은 자연과 자연자원의 보존에 좌우되고 있다"고 선언한 세계자연헌장(World Charter for nature)를 채택하였으며, 1983년에는 지구환경보호의 가장 큰 과제인,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도출을 주요 업무로 하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를 발족시켰다.

브룬트란트 여사가 위원장이었던 세계위원회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펴냈는데 그것이 바로 1987년 발간된 '우리의 공동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다.

동 보고서는 환경문제의 구조적 원인으로 인구 증가, 식량 부족, 에너지 사용 증대, 빈곤, 외채 등 경

제·사회적 남북격차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그리고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경제성장 및 사회 발전은 지속가능한 튼튼한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됨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지구환경보호의 기본 이념이 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P)'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 개념은 "미래의 우리 후손이 그들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우리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의미한다.

1980년대 후반 남극 상공의 오존층 파괴와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증가등의 지구기후변화가 과학적으로 밝혀짐에 따라 그 영향이 인류 생존에 위협적이라는 인식에서 1989년 제44차 유엔총회에서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범세계적으로 모색하고자 스톡홀름회의 20주년이 되는 1992년에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1992. 6. 3 ~ 6. 14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는 금세기 최고의 회의로 114개국 국가정상급 및 행정수반을 포함한 정부 대표 8,000여명, 6,000여 민간단체, 7,000여명의 언론인이 참석하였으며, 향후 지구환경 질서의 기본원칙이 될 '리우선언'과 그 실천계획인 '의제21' 외에도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하였다.

'의제21'은 총 4부 38개 분야를 규정하고 각국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환 · 경 · 논 · 평

우리나라의 경우 '94년 4월 지구환경관계 대책회의에서 '의제21'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천계획을 작성할 것을 결정하여 금년 4월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확정할 바 있다.

지구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점은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됨에 따라 향후 환경과 무역에 관한 다자간협상 즉 환경라운드(Green Round)의 출범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환경라운드'라는 용어는 1991년 10월 미국의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이 각국의 경쟁력 격차가 각 나라의 환경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자간 무역협상 형태인 환경라운드를 출범시키고자 제안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이후 국제적인 통상압력의 일환으로 환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서방선진국에 대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언론에서 자주 사용하면서 일반화되었다.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의 논거는 국가간의 서로 다른 환경정책이 불공정한 무역행위의 기초가 된다는 것으로 환경규제 수준이 낮은 나라의 산업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수준보다 낮은 오염물질처리비용을 지출하므로 정부로부터 수출보조금이나 생산보조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암묵적인 보조를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국가산업의 수출은 환경비용이 외부화 되어 있어 일종의 덤핑에 해당되므로 이를 수입하는 나라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간 환경정책의 차이에 따른 무역규제는 국내 환경정책의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는데 즉, 환경기준이 높은 국가의 산업은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한 비용지출로 산업비용이 상승하

게 되고 따라서 비효율적인 국가의 산업에 비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은 국내산업의 환경보전을 위한 지불의도를 하락시키게 되므로 국내 환경정책의 유지가 어려워 진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되는 논리로 주로 후진국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각국은 자국의 자연조건 및 경제·사회여건에 적합한 환경정책 및 기준을 설정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3국 및 국제기구가 이의 변경을 강요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국에 환경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나라의 생산방식 및 공정에 대한 일방적 무역규제는 비교우위의 원천으로서 환경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책주권에 대한 침해이며 경제발전단계가 다른 국가간의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같은 지구환경보호 문제에 대한 선·후진국간의 의견대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들간의 타협과 조정이 국제사회의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북미, 아랍, 구주 등의 국가들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적 이해관계에 따라 불록을 형성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선·후진국간의 이러한 의견대립은 앞으로, UR타결 이후 새로 출범한 WTO체제 아래서 새롭게 논의될 전망이다.

1994년 4월 12일에 개막된 모로코 마라케시 각료회의는 7년반이라는 긴 기간을 끌어온 UR협상을 마무리짓고 기존의 GATT체제를 대신할 WTO의 출범을 선언하면서 1995년 1월 1일부터 발족하는 WTO 첫 번째 이사회에서 WTO체제안에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문화하였다.

무역환경위원회의 활동은 국제환경협약이나 선진 각국에서 자의적이고도 일방적으로 행사되는 무역규

# 환 · 경 · 논 · 평

제가 과연 WTO의 이상인 무역자유화에 합치되는가를 검토하게 된다. 즉, 환경목적을 이유로 정당화되는 무역규제 조치의 내용과 한계, 조치방법, 분쟁해결 절차 등이 주요 골자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환경기준이 낮은 나라의 값싼 제품에 대해 시장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자기나라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무역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선진국은 자국의 입장을 보다 많이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무역의존도가 높고 환경규제 기준도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느슨한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규제에 따른 원가 상승이나 일부 재활용 원자재의 수급불균형 등으로 일시적인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환경협약이 국내 산업의 구조개편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 집약산업 중심에서 에너지 저소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등 국내의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또 대체물질 개발 같은 새로운 청정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특히 WTO를 통해 무역과 환경규제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다자간 규범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주요 선진국의 자의적인 무역규제로 인한 산업피해를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환경라운드라는 협의로는 무역자유화와 지구 환경보호를 위한 수단을 조화시키는 국제규범의 정립을 위한 다자간 협상(Post-UR)을 의미하나, 광의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역과 환경의 상호 보완적 연계를 위한 모든 국제적 논의를 통칭한다고 할 때 그동안 국제환경협약에 의한 무역규제나 국가별로 시행하고 있는 무역규제 성격의 환경관련제도 등 넓은 의미의 그린라운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가오는 21세기가 '환경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폭넓은 합의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제 환경친화적인 생활은 세계인의 보편적 가치로서 새롭게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제 각 국가와 개인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주체로서 다양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국제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범국민적으로 '세계화' 작업을 추진중이다.

과거 이념대립의 시대에는 공산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가로 편가름되었던 세계의 각 나라들이 이제는 새로운 21세기의 이데올로기인 환경보전을 기준으로 '환경보전국가'와 '환경파괴국가'로 재편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속에서 '환경모범국가'로 인정될 때 진정한 "세계화"는 이룩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제 환경보전은 우리들의 신성한 의무이자 국가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인 것이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개발단계를 거친후에 개발과 보전이 잘 조화된 나라로서 그 안에 사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세계중심국가로서의 또다른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

"세계환경의 날"은 단순히 기념식을 거행하는 날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